

저항의 존재성과 그 정의에 관한 고찰

Jean Comaroff(1985)의 *Body of power, Spirit of Resistance: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uth African People*

박 여 리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수료)

시오니즘(Zionism)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있었던 가자지구 분쟁을 떠올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오니즘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무력으로 수복하려는 전쟁을 정당화해왔다. 이스라엘의 폭력적인 행위는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종교 교리를 명분으로 ‘성전(聖戰)’으로서 지속되어왔다.

이처럼, 최근의 시오니즘은 세계적인 비판을 받는 편협한 종교적 관점으로 표상되어왔다. 그러나 『Body of power, Spirit of Resistance: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uth African People』의 저자 코마로프(Comaroff 1985)가 밝히듯이 시오니즘은 기독교인의 이권싸움을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기반으로도 작용해왔다. 어떻게 같은 종교가 권력위계의 양극단에 위치한 두 집단을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시오니즘이 처음 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시오니즘이 기층 민중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왔음을 밝힌다. 특히 남아프리카 Tshidi의 역사는 시오니즘이 토착민의 저항의 기반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회적 맥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 이전의 Tshidi 사람들에게는 토착 종교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의례들이 계승되어왔다. 그러나 19세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화 정책이 본격화될 시기 감리교인(Methodist)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Tshidi인들의 삶의 터전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감리교는 신자들에게 엄숙한 분위기, 정제된 행동을 요구하며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전략으로 이용되어왔다(Comaroff 1985: 118).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를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을 ‘교화가 필요한’ 전근대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현실의 삶과 ‘고귀한’ 종교적 삶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감리교의 논의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임노동자로 전락한 현지인들의 노동으로부터 소외(alienation)된 삶에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제국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코마로프는 현실과 종교적 숭고함 사이의 괴리 속에서, 사람들이 시오니즘이라는 새로운 분파를 현지의 토착 종교와 결합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나름대로 인식적인 ‘저항(resistance)’을 해왔다고 밝힌다. 이는 시오니즘 자체가 현세주의적이며 지나치게 이상향을 달리던 청교도에 반발하며 제시된 종교 종파 중 하

나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분리된 엄숙한 종교적 목표를 지향하던 감리교와 다르게 시오니즘은 보다 현세의 실천(Practice)을 중시하므로 노동하는 삶 자체에 가치를 둔다. 이는,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로서의 삶이 곧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여전히 각박한 현실에 살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삶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omaroff 1985: 173).

시오니즘이 표방하는 상징(symbol)적인 세계관들을 토착적인 관점에서 수용함으로써, 현지인들은 자신의 세계를 저항적인 관점으로 재인식하게 된다. 특히, 남아프리카 지역의 시오니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 실천(ritual practice)은 현세에 보다 가치를 두는 시오니즘의 가치와 토착의 가치관이 ‘몸(body)’을 통해서 표출되는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현상이다. 저자는 바로 이 리미널리티 속에서 토착민들이 사회질서로 표상되는 구조에 “반대하는(counter-)” 인식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Comaroff 1985: 231).

감리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 즉 구조인 사회에서 현지인들은 ‘실천’에 보다 가치를 두는 시오니즘의 몇 가지 특징적인 의례 행위인 증언(testimony, go bolela), 춤추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로가 저항적인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Comaroff 1985: 232). 이에 더하여 몸의 고통(affliction)의 체현을 중시하는 시오니즘적 경향으로 ‘몸’은 종교적 깨달음과 자기성찰의 핵심적 연결고리가 된다.

코마로프는 “종교적 환란(distress)이 감각적인 환란인 동시에 환란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기도 하며, 종교 자체가 억압된 현실에 대한 반항이다”고 주장한 맑스의 표현을 인용하면서 (Comaroff 1985: 256) Tshidi의 사람들도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구조 앞에서 구조의 모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종교의 상징적 의례를 창의적으로 수용했다는 것 자체가 실천적인 저항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저항(resistance)’의 정의에 대한 고전적일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저자가 본 Tshidi의 시오니즘 수용에 저항적 측면이 존재하는가? 결국 시오니즘도 서구에서 탄생한 종교적 맥락 중 하나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현지인들의 시오니즘 수용 역시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저자가 보여주는 남아프리카의 시오니즘은 토착적인 맥락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기존 시오니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측면을 보인다. 다만, 시오니즘 자체가 원래 감리교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리교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시오니즘을 수용한다는 것이 저항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시오니즘의 맹목적인 수용 또한 ‘외부의’ 맥락이 잠식되는 역사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다.

“시오니스트가 되는 것”이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동안 사회과학계에서 논의되어왔던 저항의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일찍이 권력(power)개념이 등장하게 되면서, 저항은 권력의 반대급부로 상정되어왔다. 그러나 스콧(Scott 1990)이 일상적 저항(everyday forms of resistance)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권력/저항’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이 무너졌다. 스콧(1990)은 직접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더라도 지배계층의 또는 지배적인 권력에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권력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숨겨진 기록(hidden transcript)

그 자체도 저항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페간(Fegan 1986)은 진정한 의식에 기반한 저항이 존재할 수 없다면 그 행위 또한 저항으로 명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스콧의 논의에 반박했다(Ortner 2006). 더 나아가서 스피박(Spivak 1988)을 필두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저항하는 주체로 표상되는 서벌턴(subaltern)의 존재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서벌턴의 존재도 서구의 학자들의 관점에서 저항적 주체로 '해석 또는 명명'되어왔을 뿐 주체일 수 없어왔다고 말한다. 스피박의 관점에서 본다면 Tshidi 사람들은 저항적 주체가 아니라 저자 또는 서구학자들의 제국주의적 관점에 의해 주체로 명명되어왔을 뿐인 것이다.

저자는 종교적 상징체계로 드러나는 인식체계적인 측면의 저항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민족지에서 개인들의 행위성이 드러나기 보다는 공동체의 통합적인 의식체계 및 의례적 행위 서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저자가 의례적인 실천에 주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그 안에서 변화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인식적인 상징의 변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논의는 '인식'만으로도 저항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인식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한 비판을 받을 여지 또한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Tshidi 지역 시오니즘 전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저항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저자는 비록 현지인들이 외부의 교리를 인용할지라도 기존 헤게모니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인식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저항이라는 것이다. 시오니즘적 관점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종교적 상징체계들은 변화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미 감리교가 널리 전파되어 있는 사회에서 굳이 시오니즘이 새롭게 '유행'하게 된 연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종교적 신념이 개인의 내세적 구원을 위해서든, 현세의 안위를 위해서든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권력의 인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인식의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나는 행위는 적극적인 대항은 아니지만 수동적인 수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개인의 행위성이 사회라는 수면 위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오니즘으로 개종하는 것은 오히려 스콧이 말한 숨겨진 기록으로서의 저항보다 적극적인 행위일 수 있다.

또한 저항의 기반이 반드시 창의적이거나 독자적이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해볼 수 있다. 저항이 기존의 권력체계의 모순점을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면, 그 기반이 반드시 기존 권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어떤 것'일 필요는 없다. 이는 저항을 권력의 반대급부로 정의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관점일 수 있다. 권력체계의 정반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시발점부터가 달라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 온 것이다. 그러나 저항이 권력이 존재하는 지점에 역시 존재한다면, 사실은 두 개념이 그 뿌리가 같고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라지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자가 Tshidi 지역의 시오니즘 전파의 역사를 저항의 역사로 보는 것은 오히려 저항개념 및 권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코마로프가 바라본 남아프리카의 종교적 역사는 그 자체로 역동적인(dynamic) 저항의 증명일 뿐 아니라, 저항의 정의에 대해 고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다가온다.

참고문헌

- Comaroff, Jean, 1985, *Body of Power, Sprit of Resistance : The Culture and History of a South African Peopl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rtner, Sherry, "Resistance and the problem of Ethnographic Refusal," *Anthropology and Social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pp.42-62.
- Scott, James, 1990, *Domination and the Arts of Resistance: Hidden Transcrip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1-16.
- Spivak, Gayatri,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